취업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박 세 은¹ · 방 경 숙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Correlations among Working Mothers'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Infant Care, Social Support from Others, and Parenting Efficacy

Sae Eun Park¹ · Kyung-Sook Bang²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¹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²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ing mothers'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infant care, social support, and the relationships thereof with variables including parenting efficacy.

Methods: A total of 116 working mothers who had experiences of infant non-maternal care were recruited from online communities of working mothers, and 93 participants were ultimately includ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March 2018.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support from others ($r=0.52$, $p<0.001$), and parenting efficacy ($r=0.39$,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from others and parenting efficacy ($r=0.32$, $p=0.002$).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was relatively high (86.27%), and it was highest when non-maternal care was provided by the maternal grandparents. The mean score for social support from others was 36.49 ± 8.86 .

Conclusion: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education for non-maternal caregivers and social support programs for working mothers are required.

Key Words: mother, infant, parenting, social suppor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Teti & Gelfand, 199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영아의 요구에 더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적대적이거나 강제적, 공격적 방법의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Kim & Seo, 2012; Teti & Gelfand, 1991).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육아를 위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맞벌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를 선택으로 여기며 기피하는

교신저자: 방경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2-740-8819, 팩스번호: 02-766-1852

E-mail: ksbang@snu.ac.kr

접수일자: 2018년 10월 1일, 심사일자: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2월 10일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Jeong, 2015). 기혼 여성들의 이러한 선택과 갈등은 직장가정에서의 이중책임으로 인한 역할 긴장을 가중시켜 취업모들이 직장생활과 양육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쉽다. 또한 양육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그만큼 자녀양육을 어려운 일로만 간주하여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Hyun, 2018; Park, 2018).

한편, 취업모가 느끼는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Lee, 2014). 영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Bang, 2001) 이 시기 영아는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급성장하게 된다. 또한 양육자는 영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동시에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행동을 형성하게 된다(Moon, 2012). 그런데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양육자가 과거에는 주로 영아모였으나(Bang, 2001) 최근에는 여성의 직장생활로 인해 타인양육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Kim, 2015).

특히 생후 첫 1년은 양육자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과거 몇몇 학자들은 영아에게 생후 1년 이내에 주 20시간 이상의 타인양육을 제공하는 경우 모와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Belsky, 1988). 그러나 타인양육이라도 안정성과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Cummings & Barnas, 1994; Howes et al., 1998), 모-아 상호작용은 영아모 뿐 아니라 주요돌봄자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Network, 1997). 특히 외국에서는 영아기 타인양육의 질이 청소년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Vandell et al., 2010) 1970~8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타인양육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인 양육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만큼, 영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양육자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타인양육자는 영아에게는 직접적인 양육을 제공하며, 취업모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ashima & Amato,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아 돌보기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영아를 적절히 돌보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Leahy, 2005),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2000). 또한 영아를 돌보는 모와 영아의 안녕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World Health Organization/UNICEF, 1989), 사회적 지지는 여성이 어머니되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며(Wilkins, 2006) 역할변화로 인한 걱정을 줄여준다(Pridham & Zavoral 1998). 뿐만 아니라 모의 의사결정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 모의 불안감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Mercer et al., 1984).

그 밖의 많은 연구들이 타인양육의 실태와 관련하여 수행된 바 있으나, 육아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육아지원과 관련된 부모들의 선호도나 타인양육의 어려움과 같은 육아돌봄 정책에 집중되어 영아의 주양육자가 타인양육의 인적 지지자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적절한 타인양육과 주위사람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양육효능감을 갖는 것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리라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을 경험한 취업모를 대상으로 타인양육에 대한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타인양육자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아기 타인양육을 경험한 취업모를 대상으로 타인양육 만족도와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양육의 양과 형태를 파악한다.

둘째, 타인양육 만족도와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타인양육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돌봄에 따른 취업모의 타인양육 만족도를 분석한다.

넷째, 타인양육자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취업모의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여섯째, 타인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을 경험한 초산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타인양육 만족도와 타인양육자를 포함한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취업모의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을 경험한 취업모이다. 영아기 정의에 따른 기간 12개월 중, 취업모의 출산후가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중에서 6개월 이상 타인양육을 경험한 경우로 하였으며, 돌보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타인양육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초산모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응답 시 자녀의 연령은 9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육아 커뮤니티들 중 가입 회원이 260만명으로 최대규모인 온라인 카페를 비롯한 전국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들을 임의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식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모집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116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정의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 효과크기(p) 0.3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으로 산정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82명이었다. 부모효능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Lee & Yoo, 2013)에서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효과크기는 .36으로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중간효과크기 0.30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한 116명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3명을 제외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93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도구는 개발자와 번역자의 사전승인을 이베일로 받은 후 자료수집하였다.

1) 타인양육 만족도

타인양육자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만족도는 모의 양육 자신감을 측정하는 Pharis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바탕으로 Lim (2002)이 아버지 대상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 도구는 5점 척도의 총 19개 문항으로 목욕, 기저귀 갈기, 수유, 이유식, 환경관리, 예방접종, 이상증상 발견 및 간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타인의 입장에서 신생아 양육을 할 때 해당되는 항목들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다만 본 연구자가 타인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Chung & Han, 1999), 자신감 대신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신생아에만 해당되는 ‘젖줄’관리 관련 2개 항목을 제외하고, 영아기 주요 돌봄활동인 ‘분유를 먹일 수 있다’,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 ‘이유식을 먹일 수 있다’, ‘아기에게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돌봐준다.’ 총 4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저귀’관련 항목은 소변기저귀와 대변기저귀를 구분하여 총 2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Bang, 2000; Kim, 2017; Kim, 2006)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며 최종 수정 문항은 총 21개 문항으로 1점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점은 ‘매우 만족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양육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im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96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0.93였다.

2)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내 지지인 남편의 지지와 가족 외 지지인 주위 사람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와 타인양육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편의 지지는 제외하였다.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도구는 남편 외의 식구나 그 외 사람이 집안일이나 아기양육을 도와준 정도를 나타낸다. Lee (1994)의 연구를 기초로 Bai (2002)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의 12문항으로 영아 돌봄의 물리적 지지, 정보적 지지, 가사일 지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의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90, Bai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97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0.92였다.

3)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과 Chung (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3개 영역으로, 인지적 효능감 9문항, 부모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정서 차원을 측정하는 4문항,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를 사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도치문항은 역코딩하여 최종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Chung (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0.87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IRB No. E1803/003-001)을 받은 후 2018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취업포럼 육아 커뮤니티 상에서 모집글을 본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첨부된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첫 장에서 온라인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한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해 구두 동의할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 작성 중 중단할 수 있고, 중도 포기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program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가 이용한 타인양육의 양, 형태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5) 대상자가 이용한 타인양육자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ANOVA,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영아기 타인양육 이용 현황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4.0세였고,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67명(72%)이었다. 취업상태는 출산휴가 후 복직이 34명(36.6%), 육아휴직 후 복직이 39명(41.9%)이었고, 가족형태는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동거 73명(78.5%)하였고,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501만원 이상이 67명(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녀의 생후연령은 평균 16.5개월이었고, 남아가 45명(48.4%), 여아가 48명(51.6%)이었다.

영아기 타인양육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조부모 39명(41.9%), 베이비시터 26명(28.0%), 친조부모 16명(17.2%), 어린이집(기타 포함) 12명(12.9%)였다. 타인양육 기간은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44명(47.3%), 12개월 22명(23.7%), 9개월 13명(14.0%), 10개월 12명(12.9%), 11개월 2명(2.2%)이었다. 타인양육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일평균 11.12시간, 일주일 평균은 59.74시간이었다. 타인양육 비용에 관해서는 79명(84.9%)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10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가 21명(2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5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6명(17.2%), 15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15명(16.1%)의 순이었으며 201만원 이상도 14명(15.1%) 있었다(Table 1).

2.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타인양육 만족도는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2$, $p<0.001$), 양육효능감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9$, $p<0.001$). 또한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2$, $p=0.002$)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	26~29	7 (7.5)	34.00±3.43
	30~39	82 (88.1)	
	40~41	4 (4.4)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s	67 (72.0)	
	Over university graduates	26 (28.0)	
Employment	Return from maternity leave	34 (36.6)	
	Return from childcare leave	39 (41.9)	
	On maternity or childcare leave	17 (18.3)	
	Others	3 (3.2)	
Family type	Parents with infant	73 (78.5)	
	Parents, infant, and grandparents	9 (9.7)	
	Parents only	4 (4.3)	
	Others	7 (7.5)	
Family income (10,000 won)	100~300	2 (2.2)	
	301~400	8 (8.6)	
	401~500	16 (17.2)	
	501~	67 (72.0)	
Infant age(months)			16.52±4.18
Infant sex	Male	45 (48.4)	
	Female	48 (51.6)	
Non-maternal caregiver	Paternal grandparents	16 (17.2)	
	Maternal grandparents	39 (41.9)	
	Babysitter	26 (28.0)	
	Childcare center (including mixed type)	12 (12.9)	
Period of care (months)	Over 6 and under 9	44 (47.3)	
	9	13 (14.0)	
	10	12 (12.9)	
	11	2 (2.2)	
	12	22 (23.7)	
Number of care hours per day			11.12±7.17
Hours per week			59.74±33.48
Pay for the non-maternal care	Yes	79 (84.9)	
	No	14 (15.1)	
Cost of non-maternal care (10,000 won)	1~50	13 (14.0)	
	51~100	16 (17.2)	
	101~150	21 (22.6)	
	151~200	15 (16.1)	
	201~	14 (15.1)	

Table 2.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Social Support from Others, and Parenting Efficacy

(N=93)

Variables	r (p)		
	1	2	3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1	0.52 (<0.001)	0.39 (<0.001)
Social support from others		1	0.32 (0.002)
Parenting efficacy			1

3.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 만족도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 만족도의 총점범위는 21~110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합계평균 90.58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기를 트림시킬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4.59점)가 가장 높았으며, ‘분유를 탈 수 있다(4.55점)’, ‘아기를 편안하게 안아 줄 수 있다(4.53점)’와 같은 항목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최하위권을 차지한 3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아기의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시킨다(4.01점)', '예방접종 시기를 지킬 수 있다(3.83점)',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3.81점)'였다 (Table 3).

4.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의 총점 범위는 12~48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합계평균은 36.49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기를 안아준다(3.51점).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준다(3.47점). 아기 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준다(3.43점)' 등과 같이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리적 지지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설거지나 뒷정리를 한다(3.01점). 식사준비를 한다(2.82점). 집안 청소를 한다(2.72점). 빨래나 다림질을 한다(2.57점). 식품 및 일용품 구입한다(2.48점)'와 같이 가사일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적 지지를 측정하는 항목인 '아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2.82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3. Levels of Maternal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N=93)

Variables	M±SD
Burping the baby	4.59±0.59
Mixing powdered formula with water	4.55±0.68
Embracing the baby comfortably	4.53±0.70
Caring for the baby's safety	4.51±0.70
Feeding the baby with infant feeding bottles	4.48±0.77
Soothing the baby	4.48±0.72
Caring for the baby during the mother's absence	4.45±0.83
Changing soiled diapers	4.45±0.71
Holding the baby appropriately during baths	4.44±0.68
Changing wet diapers	4.41±0.70
Feeding the baby food	4.37±0.79
Changing clothes	4.35±0.76
Identifying abnormal symptoms of the baby	4.30±0.86
Ensuring proper water for the baby's bath	4.26±0.76
Checking the baby's body temperature	4.23±0.87
T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normal and abnormal stool	4.20±0.92
Washing and sterilizing baby feeding bottles	4.18±0.93
Preparing the baby's bath	4.15±0.78
Keeping the caring environment clean	4.01±0.90
Following national guidelines for infant vaccination	3.83±1.09
Making weaning food for the baby	3.81±1.33
Total	90.58±11.08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교육수준($F=-3.08$, $p=0.003$)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모의 특성 혹은 타인양육관련 사항에 따른 양육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6. 타인양육자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타인양육자 유형에 따른 타인양육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영아의 외조부모, 어린이집(기타 포함), 베이비시터, 영아의 친조부모가 타인양육을 제공할 경우의 순으로 타인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F=3.64$, $p=0.016$). 영아 외조부모가 제공한 타인양육에 대한 만족도의 총점범위는 21~110점 중 94.82점, 어린이집(기타 포함)에 대한 만족도는 88.75점,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는 87.35점, 영아 친조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86.88점이었다(Table 6).

7. 타인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 시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는 기타 칸을 마련해 개방형 문항으로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취합하였다. 취합된 문장들을 파악하여 각각 관련 핵심어를 추출한 뒤 핵심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베이비시터, 어린이집(기타 포함) 등 타인양육자가 누구이든 공통적으로 위생 및 주변환경

Table 4.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others (N=93)

Variables	M±SD
Embracing the baby	3.51±0.76
Feeding the baby	3.47±0.83
Changing clothes or diapers of the baby	3.43±0.89
Soothing the baby when the baby cries	3.40±0.80
Putting the baby to sleep	3.20±1.05
Bathing the baby	3.05±1.12
Washing the dishes and clean up	3.01±1.10
Giving necessary information about infant care	2.82±1.02
Preparing a meal	2.82±1.16
Cleaning the house.	2.72±1.13
Doing the laundry or the ironing	2.57±1.15
Doing grocery shopping	2.48±1.19
Total	36.49±8.86

Table 5.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26~29	55.57±6.08	0.18	0.836
	30~39	54.90±9.92		
	40~42	57.75±4.11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s	53.27±8.73	-3.08	0.003
	Over university graduates	59.73±9.93		
Employment	Returned from maternity leave	53.15±9.05	1.23	0.305
	Returned from childcare leave	55.13±8.71		
	On maternity or childcare leave	58.24±11.63		
	Others	58.33±9.87		
Family type	Parents with infant	54.67±9.05	0.81	0.494
	Parents, infant, and grandparents	54.33±10.42		
	Parents only	62.00±9.49		
	Others	56.29±13.01		
Family income (10,000 won)	100~300	47.00±0.00	0.72	0.546
	301~400	52.75±6.74		
	401~500	56.06±10.88		
	501~	55.36±9.53		
Infant sex	Male	53.49±9.16	-1.57	0.119
	Female	56.56±9.63		
Non-maternal caregiver	Paternal grandparents	56.88±9.76	1.07	0.368
	Maternal grandparents	53.36±8.51		
	Babysitter	57.08±9.59		
	Childcare center (including mixed type)	53.92±11.69		
Period of care (months)	Over 6 and under 9	54.91±9.12	0.88	0.478
	9	53.31±9.52		
	10	57.92±10.59		
	11	64.00±22.63		
	12	54.08±9.48		
Pay for non-maternal care	Yes	54.80±1.06	-0.69	0.490
	No	56.77±2.73		
Cost of non-maternal care (10,000won)	1~50	56.38±8.37	1.18	0.328
	51~100	51.40±8.80		
	101~150	57.71±11.05		
	151~200	52.31±10.40		
	201~	55.64±6.06		

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7명). 예를 들면, 대변기저귀를 처리하면서 둔부를 씻겨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1명). 또한 애정어린 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6명). 예를 들면, '주양육자 못지 않게 세심하게 아이를 살펴주기를 바란다', '수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를 바란다',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아이의 발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TV 및 스마트폰 노출 자체(4명), 놀이와 관련된 교육(3명), 책을 통한 접근(2명)

등 적절한 자극을 통해 영아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아기가 울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의견(1명)도 있었다. 영양과 관련해서는 울음을 달래는 목적으로 먹이지 않기, 영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먹이지 않기 등 타인양육자가 이유식과 유아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6명). 기타 안전에 대한 내용(5명)과, 타인양육자와 주양육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영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의학적정보없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기엄마보다 보통 경험 많으시

Table 6.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according to Type of Non-maternal Care

(N=93)

Variables	Paternal Grandparents ^a (n=16)	Maternal Grandparents ^b (n=39)	Babysitter ^c (n=26)	Childcare center (including mixed type) ^d (n=12)	F Duncan	p
Preparing the baby's bath	4.06±0.68	4.33±0.77	4.23±0.72	3.50±0.80	4.02 a=b=c>d	0.010
Ensuring proper water for the baby's bath	4.19±0.75	4.46±0.68	4.27±0.67	3.67±0.98	3.65 a=b=c>d	0.020
Holding the baby appropriately during the bath	4.69±0.48	4.59±0.64	4.46±0.51	3.58±0.78	9.82 a=b=c>d	<0.001
Changing soiled diapers	4.25±0.86	4.67±0.58	4.46±0.65	4.00±0.85	3.45 b>d	0.020
Soothing the baby	4.44±0.73	4.77±0.54	4.27±0.72	4.08±0.90	4.60 b>c= d	0.005
Embracing the baby comfortingly	4.31±0.95	4.77±0.58	4.27±0.67	4.58±0.51	3.52 b>a=c	0.018
Making weaning food for the baby	3.44±1.36	4.33±0.96	3.08±1.52	4.17±1.11	6.28 b>d>c	0.001
Caring for the baby during the mother's absence	4.25±1.06	4.79±0.52	4.12±0.91	4.33±0.78	4.53 b>a=c	0.006
Caring for the baby's safety	4.50±0.73	4.72±0.51	4.15±0.88	4.58±0.51	3.73 b>c	0.014
Satisfaction with non-maternal care (total)	86.88±11.12	94.82±9.84	87.35±11.55	88.75±10.38	3.64 b>a=c	0.016

니 훈계하려는 태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타인양육을 경험했을 때 모의 타인양육 만족도, 주위 사람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는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타인양육의 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용 시간은 일평균 11.12시간, 일주일 59.74시간이었다. 그리고 대상자 중 23.7%가 출생 직후부터 12개월 동안 타인양육을 경험하였다. 이는 Belsky와 Steinberg (1978)에 의한 확장적 타인양육(extensive nonmaternal care) 범주에 해당된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장시간 타인양육에 노출되는 경우 모-아 결속력을 감소시키는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을 형성하여 영아의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위험성을 갖는다(Ainsworth, 1979; Belsky, 1988). 그러나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모든 영아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Belsky, 1988; Benn, 1986; Hock, 1980). Belsky 등 (1984)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양

육자의 '민감성(sensitivity)'개념을 소개했는데, 민감성이라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돌봄의 '주체'를 넘어서 돌봄의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Lee, 2015).

상관관계 분석결과 타인양육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또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다(Lee, 2014). Kim과 Seo (2012)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애착과 영아의 발달 간에 매개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점, Kim (2017)의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머니, 특히 취업모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모가 주위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물질적, 정보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얻고,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와 자녀 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Lee, 2014)에 비추어보면 타인양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와 영아에게 유리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타인양육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외조부모와 친조부

모 돌봄이 59.1%로 아직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다음 베이비시터, 어린이집(기타 포함) 등의 순이었다. Howes 등 (1998)은 타인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훈련 프로그램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유효하다 했으며, Cummings와 Barnas (1994)에 따르면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안정된 타인에 의해 돌봄이 제공될 때 영아와의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모가 개인 타인양육 유형을 취하는데 그 이유로 개인대리양육자가 영아와 장시간 동안 안정된 공간인 집에서 영아와 민감하게 상호작용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Jun, 2011).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타인양육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외 조부모,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조부모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기혼 여성이 친정 부모를 타인양육자로 이용하면서 그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족주의 가치가 강조되어 조부모와 기혼 장남 가족이 동거하던 부계제의 모습과 다른 세대간 교환 방식이 적용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2). Lee (2012)의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연구결과 여성의 친정부모와 상호작용 수준이 남성 가족의 상호작용 수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여전히 영아 돌봄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돌봄 지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여성의 친족관계망이다.

영아기 자녀를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모의 만족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서였다(Jeong, 2015). 이는 전국보육실태조사(2012)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전인적 발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다음 이유로는 돌봐줄 분이 없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Jeong (2015)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어린이집에 대한 모의 만족도는 원장의 인성과 자질에서 가장 높았고, 교사의 인성과 자질, 거리, 주변의 평판, 세심함과 안전, 가정 같은 분위기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린이집 만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 이므로 타 유형의 타인양육과 비교했을 때 목욕, 기저귀 교환, 우는 아기 진정시키기와 같은 개별적 돌봄에서는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기대할 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족도를 평가할 때는 기관장과 교사가 해당 항목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볼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기 타인양육을 경험한 초산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합계 총점 110점에 90.58점(86.27점/10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기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거나 체온 측정하기, 대변의 정상 여부 구별, 예방접종 시기 알기 등과 같이 타인양육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양육자의 아기가 아플 때 대처방법,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고(Kim & Jeong, 2007; Kwon et al., 2015),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들도 영아의 건강, 안전에 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자세히 교육받기 원하는 상위 주제에 ‘영아의 주요 질환 증상 및 간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Ha & Bang, 2015)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예방접종 항목의 경우, 영아 건강관리에 대한 모와 타인양육자의 입장의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Ha와 Bang (2015)의 연구결과 영아의 예방접종관리가 부모에게 위임되므로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교육요구도는 낮았던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취업모 입장에서 타인양육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항목 중 하나로 나타났다. 0~1세에는 특히 여러 번의 필수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선택, 월령에 따른 백신 관련 정보, 접종 후 집중 관찰 사항 등 영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양육자의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건강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양육자는 주양육자인 모에게 이러한 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여겨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취업모 입장에서는 모를 대리하여 타인양육자가 이러한 업무를 잘 처리해줄기를 바랄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영아의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타인양육자에게 많은 의료 관련 정보를 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타인양육자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하고 서로 이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젖병을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다(17위). 아기의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시킨다(19위).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21위)’와 같은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은 직접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행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양육의 넓은 범위에 아기 이유식 만들기, 아기 옷 빨래, 방 정리정돈, 청소, 젖병 세척, 소독과 같은 가사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양육자와 모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영아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리적 지지는 높게 측정되었으나 가사일과 관련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취업모는 일과 동시에 가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되는 가사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인 요구도 조사결과에서도 위생 및 주변환경 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점을 분석해보면 영아의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경험연구(Kim, 2007)에서 양육과 가사의 병행이 타인양육자들의 체력을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비추어 더욱 고갈되게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모와 타인양육자 사이에는 양육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관해 기대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직접적인 양육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가사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모와 타인양육자 개인에 따라 판단하는 양육관련 중요도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타인양육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타인양육자가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모와 사전에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의 타인양육자라면 모가 타인양육자의 체력적 문제를 고려하여 가사의 영역에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단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들을 임의 선택하여 적은 수의 대상을 모집하고 진행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서술적 조사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아기 타인양육을 경험한 모의 타인양육의 만족도를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아-환경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타인양육자가 어떠한 면에서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모가 인지하는 타인양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에 관해 모의 입장과 타인양육자의 입장 양쪽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타인양육자에 대한 중재 혹은 취업모 혹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중재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중재 등 다양한 프로

그램 및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결과 타인양육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취업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타인양육 만족도는 합계 총점 110점에 90.58점(86.27점/10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타인양육자가 영아의 외조부모인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타인양육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서는 영아 양육과 직접 관련된 물리적 지지가 높게, 가사일과 관련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타인양육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인양육자에 대한 중재 혹은 취업모 혹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중재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간호 중재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 Ainsworth MS. Infant-mother attachment. *Am Psychol* 1979; 34(10):932-7.
- Bai JY. Construction of a postpartum depression model. *J Korean Acad Psych Ment Health Nurs* 2002;11(4):572-87.
- Bang KS. Effects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Child Health Nurs Res* 2001;7(1):21-34.
- Bang KS. Effects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Belsky J.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 Res Q* 1988;3(3):235-72.
- Belsky J, Rovine M, Taylor DG.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 1984;55(3):718-28.
- Belsky J, Steinberg LD. The effects of day 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 1978;49(4):929-49.
- Benn RK. Factors promoting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their sons. *Child Dev* 1986;57(5):1224-31.
- Chung ES, Han ME. A study o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among primiparas.

-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9;5(1):79-88.
- Coleman PK, Karraker KH.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 Relat* 2000;49(1):13-24.
- Cummings EM, Barnas MV. Caregiver stability and toddlers' attachment-related behavior towards caregivers in day care. *Infant Behav Dev* 1994;17(2):141-7.
-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anada; 1978.
- Ha YH, Bang KS. Educational demands among teachers at infant daycare center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15;18(1):19-27.
- Hashima PY, Amato PR.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 1994;65(2):394-403.
- Hock E.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 1980;26(2):79-101.
- Howes C, Galinsky E, Kontos S. Child care caregiver sensitivity and attachment. *Soc Dev* 1998;7(1):25-36.
- Hyun JH.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ather's parenting stres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general stres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108:1-20.
- Jeong WJ. The selection factor and the satisfaction degree of mothers who send their young children to home day care center: Focused on Bundang-gu of Seongnam cit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Jeong YJ. The effects of types of childcare and work-family culture on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J Fam Welf* 2015;20(4):673-91.
- Jun SM.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care services: A study targeting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below two yea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2011;7(2):77-101.
- Kim A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al satisfaction perceived by employed mother with having infant child.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7;22(5):209-31.
- Kim EJ. Home-based child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its enhancement.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15;6:49-60.
- Kim HK, Jeong IS.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 Korean Acad Nurs* 2007;37(1):125-34.
- Kim HN, Seo SJ.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infa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2;19(1):307-29.
- Kim HY. The educational concerns of young children's mothers in an internet child care community. Seoul: Chung Ang University; 2017.
- Kim JH. The meaning of infant and toddler care at the day care center. Seoul: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6.
- Kim MJ.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 Korean Acad Nurs* 2007;37(6):914-23.
- Kwon MK, Bang KS, Kim HK. Comparison of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 and father.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15;18(1):11-8.
- Leahy-Warren P. First-time mothers: Social support and confidence in infant care. *J Adv Nurs* 2005;50:479-88.
- Lee HH. Family differentiation between married people and grandparents' caregiv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Lee HK. A Comparison of Primiparous and Multiparous Mothers on Maternal Role Strain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J Korean Acad Nurs* 1994;24(2):241-50.
- Lee HS, Yoo SH.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Korean J of Child Stud* 2013;34(1):35-51.
- Lee SH.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mbodied meaning of the care experience by the infant in child-care center: focusing on attachment phenomen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Lee YJ.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temperament of child,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self-efficacy in Employed Mother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85:117-36.
- Lim JA.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of postpartal mother and newborn care. Seoul: Hanyang University; 2002.
- Mercer RT, Hackley KC, Bostrom A. Social support of teenage mothers. *Birth Defects Orig Artic Ser* 1984;20(5):245-90.
- Moon YK.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2;30(3):165-77.
- Network NECCR.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 1997:860-79.
- Park CW. Female college student's type of subjective perception on marriage, childbirth, child car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018;59:265-95.
- Pharis ME.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ng role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SA: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78.

- Pridham KF, Zavoral JH. Help for mothers with infant care and household task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Public Health Nurs* 1988;5(4):201-8.
- Shin SJ, Chung MJ.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 Child Stud* 1998;19(1):27-42.
- Teti DM, Gelfand DM.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 1991;62(5):918-29.
- Vandell DL, Belsky J, Burchinal M, Steinberg L, Vandergrift N.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 2010;81(3):737-56.
- Wilkins C. A qualitative study exploring the support needs of first time mothers on their journey toward intuitive parenting. *Midwifery* 2006;22:169-80.
- World Health Organization/UNICEF. Protecting, promoting and supporting breastfeeding; The special role of the maternity services. A joint WHO/UNICEF statement. WHO, GENEVA; 1989.

KCI